지식경제부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1년 3월 2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지식서비스과 장금영 과장(2110-4770), 강연주 사무관(4772)	

지난 해 이러닝 시장 7.4% 성장

2010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 … 이러닝 시장규모 2조 2,458억원
20~30대 이러닝 이용자의 10%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이러닝 활용

◈ **'10년 이러닝산업 총 매출액**은 **2조 2,458억원**으로 전년대비 7.4% **성장**하였고, **사업자 수**는 **총 1,549개**로 **전년에 비해 13.2%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04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정 이후, 국내 이러닝 산업은 **연평균 약 10% 성장**하며 **대표적인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국내 이러닝 시장규모 : ('04년) 1조2,984억원 → ('10년) 2조2,458억원

◈ 지난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만 3세이상 국민의 49%**가 **이러닝을 이용하여 학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30대 이러닝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 활용 비율이 **10%**에 달했으며,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의 확산과 더불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이러닝 이용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이러닝 공급기업과 수요자(개인, 사업체, 정규 교육기관, 정부-공공기관 등)를 대상으로 『**2010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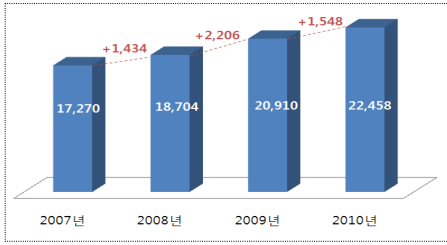
* 이러닝산업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528호)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이러닝산업 현황을 파악하여 이러닝 관련 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

< 이러닝 공급부문 현황 >

□ **'10년 이러닝 시장규모**는 **2조 2,458억원**으로 전년대비 **7.4% 성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

○ 서비스(전년대비 8.9% 성장)·콘텐츠(3.7%) 시장이 꾸준히 성장한 가운데, '09년 감소세를 보인 **솔루션 시장**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용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수요 확대로 **6.0% 증가**

< 국내 이러닝 시장규모 (억원) >



< 부문별 시장규모 및 구성비 (억원, %) >

분야	규모	증감률 (전년比)	구성비
콘텐츠	5,090	3.7	22.7
솔루션	2,239	6.0	10.0
서비스	15,129	8.9	67.3
합계	22,458	7.4	100

□ **서비스 부문 사업자의 활발한 진입으로 이러닝 사업자 수**는 전년대비 **13.2% 증가**한 **1,549개** 기록

* 부문별 사업자수 증가율(전년대비) : (콘텐츠)10.3%, (솔루션)6.6%, (서비스)15.4%

○ 특히, 교과서·참고서 사업에 집중해 온 **출판업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수익 극대화**를 노리며 이러닝 사업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음

□ **이러닝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23,468명**

* 직무별 인력구성비 : (서비스운영자) 30.3%, (콘텐츠개발자) 21.6%, (시스템개발자) 15.6%, (내용전문가) 13.6%, (기획컨설턴트) 8.6%, (교수설계자) 4.2% 順

○ 전체 이러닝기업의 **43.6%**가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닝산업 인력부족률**은 **8.2%**로 나타나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역량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 직무별 인력부족률[=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 (교수설계자)13.8%, (시스템개발자)12.1%, (기획컨설턴트)11.7%, (콘텐츠개발자)11.2% 등

** 직무별 부족인력수 : (콘텐츠개발자)632명, (시스템개발자)504명, (기획컨설턴트)264명, (서비스운영자)237명, (교수설계자)150명 등

< 개인의 이러닝 이용 현황 >

□ 지난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만 3세 이상 국민의 이러닝 이용률**은 **49.0%**로 전년대비 **0.7%p 증가**

○ 초·중·고교생인 **8~19세의 이용률**이 **74.4%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중심 이러닝이 점차 **평생교육의 기회로 활용**되면서 **40대 이용률**도 전년대비 9.5%p 증가한 **41.2%로 크게 증가**

* 연령대별 이러닝 이용률 : (3~7세) 38.1%, (8~19세) 74.4%, (20대) 66.0%, (30대) 44.1%, (40대) 41.2%, (50대 이상) 22.1%

□ 개인의 **이러닝 이용분야**는 **외국어 학습이 3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초·중·고 교과과정 등 **학업연장**(27.9%), **직무**(19.6%), **자격**(19.1%)이 그 뒤를 이었음

* 이러닝 이용 분야(중복응답) : (외국어) 38.0%, (초중고 교과과정) 27.9%, (금융·경영·마케팅 등 직무) 19.6%, (자격) 19.1%, (IT) 12.0% 등

○ IT(12.0%), **산업기술**(8.7%), **유아·미취학 교육**(8.4%) 분야의 이러닝 이용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외국어, 초·중·고 교과중심의 이러닝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

□ 이러닝 이용자는 **인터넷 사이트**(72.2%)와 **방송**(45.6%)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활용 비율**도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닝 이용 방법(중복응답) : (PC 인터넷 사이트) 72.2%, (교육방송) 45.6%, (CD·DVD 등 저장매체) 11.6%,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 5.7%

○ 특히 **20~30대의 모바일 기기 활용** 비율은 각각 **9.7%, 8.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닝업체와 통신사업자 간 협력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이러닝이 급속히 확산**될 전망

□ 한편, 이러닝 **비이용자의 과반수**(58.3%)가 **향후 이러닝을 통해 학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앞으로 **이러닝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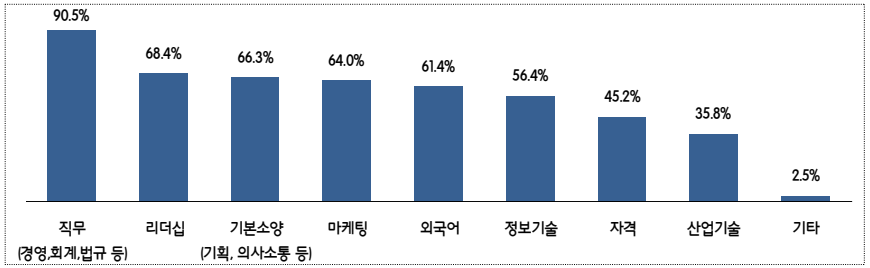
< 사업체의 이러닝 도입 현황 >

□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이러닝 도입률은 전년대비 2.1%p 상승한 **62.8%**이나,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이러닝 도입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9%에 불과**

○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29.1%), **통신업**(16.3%)의 도입률이 **가장 높았고**, 건설업(1.9%), 부동산 및 임대업(1.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1%)의 도입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사업체들은 주로 **직무**(90.5%), **리더십**(68.4%), **기본소양**(66.3%) **분야 교육에서 이러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의 이러닝 이용분야 (중복응답, %) **>**



□ 사업체들은 이러닝 도입 후 교육장소·강사 확보 등 교육관련 **관리부담 감소,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 직원들의 교육참여 활성화 등을 가장 큰 효과**로 꼽았음

○ 특히, **이러닝 도입 사업체의 55.1%**가 이러닝 도입을 통해 **교육 비용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오프라인 교육 대비 **약 38%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닝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들은 이러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도입방법 모름'**(60.3%), **'필요성을 못 느낌'**(31.1%)을 꼽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러닝 도입 방법과 효과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정규 교육기관과 정부·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현황 >

□ **정규 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률**은 **81.4%**로 전년대비 1.4%p 증가하였으며, 이러닝 도입률이 가장 낮은 **전문계고의 이러닝 도입이 가장 활발**(전년대비 8%p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남

* 정규 교육기관 이러닝 도입률 : (초등학교) 88.7%, (중학교) 79.7%, (인문계고) 69.1%, (전문계고) 55.1%, (전문대학) 63.4%, (4년제 대학교) 79.1%

○ 이러닝 도입 학교는 전체 과목 중 **약 33%**의 과목에 **이러닝 과정을 개설**(학교 평균 15.9개 과정)하고 있었으며, 이러닝 과정의 **65.7%**를 오프라인 강의의 **병행과정** 또는 **보조자료로 활용** 중

□ **정부·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률**은 전년대비 1.2%p 증가한 **77.6%**로 지방공사(4.7%p 증가)를 중심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임

* 정부·공공기관 이러닝 도입률 : (중앙정부) 100%, (광역지자체) 100%, (기초 지자체) 86.7%, (공기업) 71.4%, (준정부기관) 88.9%, , (기타 공공기관) 61.4%

< 지식경제부 이러닝 정책방향 >

□ '11.3.3일 지식경제부는 **▲이러닝산업 생태계 개선, ▲기술역량 강화·창의적 인재 양성, ▲이러닝 활용 촉진, ▲이러닝 해외 진출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계획(2011~2015)」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음

○ '11년에는 저작권료 상승 등으로 인한 이러닝업체의 애로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이러닝콘텐츠업체와 서비스업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협력모델을 발굴할 예정

○ 또한, 이러닝콘텐츠·솔루션·서비스 등 이러닝 패키지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출 유망모델 발굴과 현지화 지원

○ 산업현장의 고비용·고위험 훈련을 보완할 e-트레이닝 시스템 개발·확산을 추진하여 e-트레이닝산업을 이러닝산업의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

<참고> 2010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결과 요약

참고 2010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이러닝 공급부문 조사결과

□ 이러닝 사업자 수

○ 2010년 이러닝 사업자 수는 총 1,549개
- 대표사업 분야별로 보면, 서비스 사업자 1,043개, 콘텐츠 사업자 344개, 솔루션 사업자 162개
- 2009년 대비 181개 사업자 증가(13.2% 증가)

○ 사업분야별 비중은 서비스 사업자가 전체의 67.3%, 콘텐츠 사업자 22.2%, 솔루션 사업자 10.5%

[사업 분야별 이러닝 사업자 수 증감추이]

(단위 : 개,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전체	381	100.0	621	100.0	756	100.0	1,145	100.0	1,368	100.0	1,549	100	181	13.2
콘텐츠	126	33.1	167	26.9	201	26.6	283	24.7	312	22.8	344	22.2	32	10.3
솔루션	74	19.4	92	14.8	94	12.4	135	11.8	152	11.1	162	10.5	10	6.6
서비스	181	47.5	362	58.3	461	61.0	727	63.5	904	66.1	1,043	67.3	139	15.4

○ 2009년까지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 중 137개가 이러닝 사업을 중단
- 각 분야별 사업중단 사업자는 서비스 분야 119개, 콘텐츠 분야 11개, 솔루션 분야 7개
- 이러닝 사업 중단률은 평균 10.0%(2009년 15.2%)

○ 2010년 신규진입 사업자는 332개
- 각 분야별 신규진입 사업자는 서비스 분야 258개, 콘텐츠 분야 43개, 솔루션 분야 31개
- 이러닝 사업 신규 진입률 평균 21.4%

[2010년 대표사업별 신규 사업자 현황]

(단위 : 개, %)

대표사업분야	신규 사업자 수	구성 비율	신규 진입률
전체	332	100.0	21.4
콘텐츠	43	13.0	12.5
솔루션	31	9.3	19.1
서비스	258	77.7	24.7

* 신규 비율 = 이러닝 신규 사업자 수 / 2010년 사업자 * 100

□ 이러닝 공급시장 규모

○ 2010년 이러닝 매출액 2조2천4백억원
- 2009년 대비 7.4% 성장
- 서비스부문 8.9%, 솔루션부문 6.0%, 콘텐츠부문 3.7% 증가

○ 이러닝 기업 당 평균 매출액 14억4천만원

[이러닝 사업자 총 매출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9년		2010년		전년 대비 증감률	평균매출액
	매출액	구성비	매출액	구성비		
소계	**2,091,033**	**100**	**2,245,833**	**100**	**7.4**	**1,449.9**
콘텐츠	490,904	23.5	509,024	22.7	3.7	1,479.7
솔루션	211,291	10.1	223,876	10.0	6.0	1,381.9
서비스	1,388,838	66.4	1,512,933	67.4	8.9	1,450.6

○ 전체 사업자의 2.8%에 해당하는 100억원 이상 사업자가 총 매출액의 50.1%를 차지

○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가 869개로 56.1%를 차지하고 있으나,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
- 산업성장에 따른 기회요인과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는 산업적 특성에 따라 서비스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소규모 신규사업자 진입이 두드러짐

[매출액 규모별 사업자 수 분포]

(단위 : 개, %)

구분	사업자 수(개)		총매출액(백만 원)		평균 매출액(백만 원) [총매출액/사업자 수]
	사업자 수	비중(%)	매출액	비중(%)	
전체	**1,549**	**100**	**2,245,833**	**100**	**1,449.9**
1억 원 미만	869	56.1	20,211	0.9	23.3
1~10억 원	342	22.1	145,980	6.5	426.8
10~30억 원	153	9.9	260,517	11.6	1,702.7
30~50억 원	89	5.7	325,646	14.5	3,658.9
50~100억 원	53	3.4	368,316	16.4	6,949.4
100억 원 이상	43	2.8	1,125,163	50.1	26,166.6

□ 이러닝 인력 현황

○ 2010년 이러닝산업 인력 수 23,468명
- 이러닝 인력은 2009년 22,679명 대비 3.5% 증가

[이러닝 산업인력 수]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16,414	19,644	20,773	21,423	22,679	23,468
연간 인력증가율(%)	23.9	19.7	5.8	3.1	5.9	3.5

○ 전체 인력 중 서비스 운영자 인력이 3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콘텐츠 개발자 21.6%, 시스템 개발자 15.6%, 내용 전문가 13.6% 순

[경력별 직무별 인력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기획 컨설턴트	내용 전문가	교수 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시스템 개발자	서비스 운영자	기타
전체	**100.0**	**8.6**	**13.6**	**4.2**	**21.6**	**15.6**	**30.3**	**6.0**
초급	32.0	5.9	3.3	1.5	26.8	20.3	38.4	3.7
중급	40.4	11.5	4.0	7.2	23.5	16.4	28.7	8.8
고급	27.6	7.6	39.7	3.0	12.8	9.1	23.3	4.5

○ 이러닝 사업자 중 인력부족 기업은 전체 기업의 43.6%(2009년 39.6%)
- 2009년도 대비 높아졌지만, 성장산업으로서 산업 전문 인력 부족과 양적인 신규충원에 대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 인원 대비 이러닝 산업인력 부족률은 평균 8.4%(2009년 7.2%)
- 교수설계자에 대한 부족률이 1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획 컨설턴트 11.7%, 콘텐츠 개발자 11.2%등의 순
- 산업 내 필요인력수는 총 2,105명

[경력별 직무별 인력부족률]

(단위 : %)

구분	전체	기획 컨설턴트	내용 전문가	교수 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시스템 개발자	서비스 운영자	기타
전체	**8.4**	**11.7**	**4.3**	**13.8**	**11.2**	**12.1**	**3.2**	**11.5**
초급	8.1	15.4	12.0	22.5	7.4	8.9	2.8	29.9
중급	9.6	10.5	19.9	14.6	11.7	12.7	4.2	3.0
고급	6.8	10.9	0.6	4.8	17.9	18.4	2.2	11.4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 * 100

□ 투자 현황

○ 전체 이러닝 사업자의 2010년 이러닝 관련 투자기업 비율은 44.6%
- 솔루션사업자 56.1%, 서비스 사업자가 44.4%, 콘텐츠 사업자 39.7%
- 2008년도 50.7%, 2009년도 51.6%로 다소 감소

○ 전체 이러닝 사업자들의 2010년 기업 당 투자액은 2억3천7백만원
- 연구개발(R&D)부분 1억1천7백만원, 시스템부분 9천5백만원 투자

[대표 사업 분야별 투자 비율]

(단위 :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투자기업 비율	평균투자액
전체	**46.3**	**54.1**	**50.2**	**50.7**	**51.6**	**44.6**	**237.1**
콘텐츠	35.8	52.1	52.2	66.7	50.8	39.7	247.6
솔루션	51.9	60.9	39.3	40.7	60.4	56.1	367.8
서비스	51.3	61.5	48.2	45.2	50.5	44.4	167.0

□ 지적재산권 보유 및 인식

○ 이러닝 관련 사업체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중 1가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26.7%(2009년도 30.1%)

○ 지적재산권 보유기업 중 저작권 보유 비율이 71.2%, 특허권 6.6%, 실용신안권 7.4% 순으로 보유. 평균 보유건수는 저작권 11.2건, 실용신안권 1.2건, 특허권 1.1건순

[지적재산권 보유비율 및 평균 보유건수]*

(단위 : %, 건, 보유기업)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보유비율	6.6	7.4	5.8	5.8	71.2
평균 보유건수	1.1	1.2	0.9	0.9	11.2

* 지적재산권은 사업체 보유 지적재산권과 유통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포괄함

2. 이러닝 수요부문 조사결과

□ 이러닝 수요부문 시장규모

○ 2010년도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2조 2,243억원
- 개인이 수요시장의 45.1%인 1조31억원, 사업체가 9,631억원으로 43.3.%를 차지
- 정부/공공부문이 1,512억원으로 6.8%, 교육기관이 가장 낮은 비중으로 1,067억원 4.8%를 점하고 있음

[2010년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전체	개인	사업체	교육기관	정부-공공기관
금액	2,224,339	1,003,177	963,139	106,768	151,255
비율	100.0	45.1	43.3	4.8	6.8

○ 수요 계층별로 교육기관의 이러닝 시장 규모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10.7%의 증가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큰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 8.7%p, 개인 6.1%p, 정부-공공기관에서 5.2%p 증가
- 전체 수요시장에서 사업체 비중이 0.5%p, 교육기관 0.1%p 증가한 반면, 개인 0.5%p, 정부 및 공공기관 0.1%p 소폭 감소하여, 시장규모 비중은 매년 큰 차이없이 비슷하게 형성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전체	**1,613,307**	**1,727,632**	**1,866,828**	**2,071,892**	**2,224,339**	**7.4**
개인	697,227	735,108	816,765	945,369	1,003,177	6.1
사업체	752,286	759,603	812,052	886,283	963,139	8.7
교육기관	26,220	69,555	70,804	96,434	106,768	10.7
정부-공공기관	137,574	163,366	167,207	143,806	151,255	5.2

□ 개인 이러닝 이용 현황

○ 2010년도 이러닝 이용률 49.0%

- 2007년 39.4%, 2008년 45.0%, 2009년 48.3%, 2010년 49.0%로 매년 성장
- 2007년도 처음 실시된 3~7세 영유아의 경우 이러닝 이용률이 38.1%로 2009년 35.0% 대비 3.1%p 증가

○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이용률이 41.2%(9.5%p증가)로 가장 크게 상승되었는데, 이는 직장생활에 필요한 직무 관련 이러닝 시장의 상승에 기인됨

○ 학생중심의 이러닝 교육이 전 연령층, 직장인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점차 평생교육의 개념 속에서 이러닝이 이용되고 있음

[개인특성별 이러닝 이용 증감률]

(단위 :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39.4	45.0	48.3	49.0	0.7
성별	남자	45.8	47.6	50.4	50.7	0.3
	여자	31.5	41.9	46.1	47.1	1.0
연령대	3~7세	28.7	32.3	35.0	38.1	3.1
	8~19세	67.0	70.9	72.0	74.4	2.4
	20대	50.7	61.3	62.6	66.0	3.4
	30대	27.2	30.5	40.8	44.1	3.3
	40대	23.4	29.6	31.7	41.2	9.5
	50대 이상	11.2	13.5	18.4	22.1	3.7

○ 개인 이러닝 이용자 전체가 2010년 한 해 동안 지불한 이러닝 지출액은 총 1조 31억으로 추정되며, 2009년 9,454억원 대비 578억원(6.1%) 증가

[이러닝 이용자의 총 이러닝 지출액 규모 추이]

(단위 : 백만 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010년	전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735,108	816,765	945,369	1,003,177	57,80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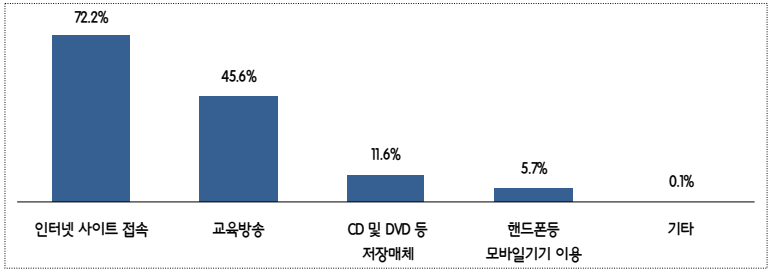
○ 이러닝 비용 지출자의 연평균 이러닝 이용금액은 22.5만원

- 남성 21.8만원, 여성 22.95만원으로 여성 이용자의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20대 이용자의 지출금액이 가장 높아 연평균 23.4만원이며, 8~19세 21.9만원, 30대 20.8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러닝 이용매체로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 72.2%, '교육방송' 45.6%로 PC와 TV가 이러닝 이용 매체의 중요한 축인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는 'CD 및 DVD 등 저장매체' 11.6%, '핸드폰등 모바일기기 이용' 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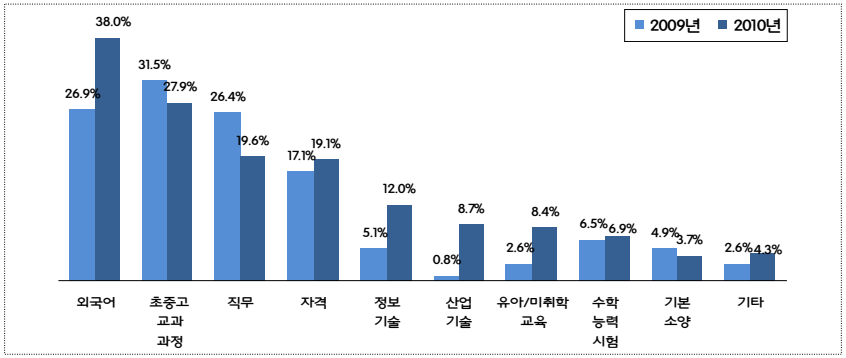
[이러닝 이용자의 이러닝 이용매체(중복응답)]



○ 이러닝 이용 분야별로는 외국어 학습이 38.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초중고 교과과정 27.9%, 직무 19.6%, 자격 19.1% 등의 순

- 초중고 교과과정 비중이 다소 낮아진 반면, 자격, 정보기술, 산업기술 등 취업 및 산업 내 필요학습 영역 등 다분야로 이용 확산

[이러닝 이용자의 이러닝 이용 분야 (중복응답)]



□ 사업체 이러닝 도입 현황

○ 국내 사업체의 이러닝 도입률은 4.0%로 2009년에 비해 0.4%p 상승*

○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이 62.8%, 50~299명 사업체 27.2%, 10~49명 사업체 15.7%로 2.3%p 증가

[규모별 이러닝 도입률]**

(단위 :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2.6**	**3.1**	**3.2**	**3.6**
300인 미만 사업체	2.6	3.0	3.1	3.5
300인 이상 사업체	39.2	52.0	53.8	60.7
9명 이하	2.1	2.3	2.3	2.6
10~49명	8.9	11.2	11.9	13.4
50~99명	10.1	22.0	22.1	27.0
100~299명	21.9	35.5	36.0	37.2
300~499명	25.4	45.9	46.3	52.3
500명 이상	54.9	59.0	62.0	70.4

구분	2010년	증감률
전체	**4.0**	**0.4**
300인 미만 사업체	3.9	0.4
300인 이상 사업체	62.8	2.1
9명 이하	2.8	0.2
10~49명	15.7	2.3
50~299명	27.2	–
300명 이상	62.8	–

[업종별 이러닝 도입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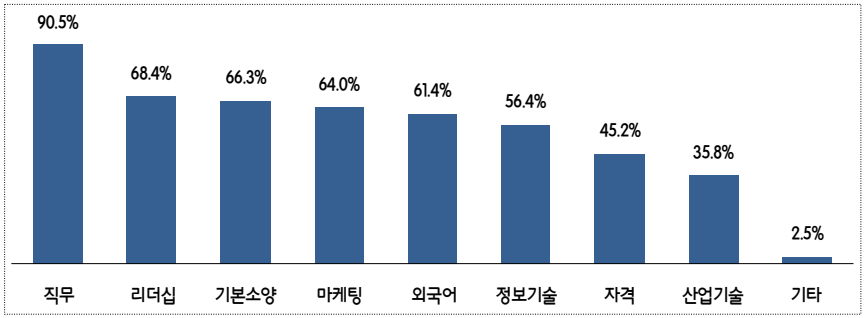
구분	전체
전체	**4.0**
농업, 임업 및 어업	2.3
광업 및 제조업	2.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8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5
건설업	1.9
도매 및 소매업	3.4
운수업	2.5
숙박 및 음식점업	3.0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3
금융 및 보험업	29.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9
교육 서비스업	7.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9

* 사업체의 이러닝 도입률은 직원의 이러닝 학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포함함

** 2009년까지 규모를 6개 구간 : 9명 이하/10~49명/50~99명/100~299명/300~499명/500명 이상
2010년이후 규모를 4개 구간 : 9명 이하/ 10~49명/50~299명/300명 이상

○ 이러닝을 도입/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직무(90.5%)' 분야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리더십(68.4%)', '기본소양(66.3%)', '마케팅(64.0%)', '외국어(61.4%)' 등의 순

[이러닝 이용 사업체의 이러닝 이용 분야]



○ 오프라인 대비 이러닝을 통한 교육비 절감 사업체 비율 55.1%
- 이러닝을 통한 교육비 절감은 동일과정 오프라인대비 약 37.8%
-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절감률이 300인 이상 사업체 절감률보다 높음

[이러닝 교육비 절감효과]

(단위 : %)

구분	교육비 절감효과가 매우 크다	교육비 절감효과가 있는 편이다	비슷하다	교육비가 늘었다	총 오프라인 교육비 대비 절감비율
전체	**3.7**	**51.4**	**43.5**	**1.4**	**37.8**
300인 미만 사업체	3.6	51.6	43.5	1.3	37.9
300인 이상 사업체	13.9	39.3	41.4	5.5	35.3

○ 이러닝 도입 기대효과는 '특정 교육장소, 강사 확보 등 관리 부담 감소'가 29.3%, '다양한 교육 제공 가능' 25.6%, '자율적 선택으로 교육 참여 활성화' 18.3%, '맞춤형 교육 관리 기능' 과 '교육 운영비 절감' 12.8% 등으로 나타남

□ 정규교육기관 이러닝 도입 현황

○ 정규교육기관 이러닝 도입률 81.4%로 전년대비 증가(1.4%p↑)
- 초등학교 88.7%, 중학교 79.7%, 4년제 대학 79.1%, 인문계 고교 69.1% 등의 순
- 지난해 대비 전문계 고등학교가 8.0%p로 높은 상승률

[정규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률]

(단위 : %, %p)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전체	**29.1**	**74.3**	**76.8**	**80.0**	**81.4**	**1.4**
초등학교	16.7	81.7	83.5	88.0	88.7	0.7
중학교	35.0	74.0	76.6	78.0	79.7	1.7
인문계 고등학교	52.3	65.6	67.8	68.7	69.1	0.4
전문계 고등학교	39.2	39.7	45.1	47.1	55.1	8.0
전문대학	50.5	51.6	57.6	62.0	63.4	1.4
4년제 대학교	66.0	74.9	77.5	78.0	79.1	1.1

○ 이러닝 운영 과정 수 평균 15.9개
- 4년제 대학 82.4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 26.8개, 초등학교 15.3개 등을 운영
- 이러닝 운영과목 중 이러닝 단독 운영비율은 34.3%,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 운영 비율 33.8%이고, 오프라인 보조형은 31.9%로 활용

[이러닝 이용 연간 이러닝 과정 수]

(단위 : 개, %)

구분	2010년 이러닝 이용개설 과목수	이러닝 단독 운영 과목		오프라인+온라인 병행 과목수		오프라인 강의 보조형 이러닝 과목수	
		과목 수	비율	과목 수	비율	과목 수	비율
전체	**15.9**	**5.5**	**34.3**	**5.4**	**33.8**	**5.1**	**31.9**
초등학교	15.3	3.7	23.9	6.9	44.8	4.8	31.3
중학교	11.0	3.7	33.3	2.6	23.6	4.8	43.1
인문계 고등학교	11.0	3.8	34.1	3.4	30.9	3.9	35.0
전문계 고등학교	13.5	1.8	13.7	4.9	36.5	6.7	49.8
전문대학	26.8	15.8	59.0	4.2	15.8	6.8	25.2
4년제 대학교	82.4	39.0	47.4	14.6	17.8	28.7	34.9

○ 이러닝 운영목적은 '정규 교과 과정의 보충'이 89.6%로 가장 많았고, '교육의 질적 향상' 74.2%, '기존 교실 강의 탈피' 20.3% 등의 순

□ 정부-공공기관 이러닝 도입 현황

○ 정부 및 공공기관 이러닝 도입률 77.6%
- 2009년 76.4%로 전년대비 1.2%p 증가
- 중앙정부기관, 교육청과 광역지자체 도입률 100.0%, 지방공단 88.9% 순임
- 이러닝산업발전법 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이러닝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매우 활성화된 이러닝 도입양상을 보임

[정부-공공기관 조직 형태별 이러닝 도입률]

(단위 :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전체	**기관수**	**56.9**	**59.4**	**76.4**	**77.6**	**1.2**
중앙정부기관	35	71.4	76.5	100.0	100.0	-
기초지방자치단체	256	41.4	53.9	85.1	86.7	1.6
지방공사	43	55.6	60.5	66.7	71.4	4.7
지방공단	70	55.6	62.7	88.6	88.9	0.3
교육청	16	100.0	100.0	100.0	100.0	-
기타공공기관	302	-	56.9	61.4	63.2	1.8
광역지자체	16	100.0	100.0	100.0	100.0	-

○ 각 세부 기관별로 보면 중앙정부기관 지출액이 476억원(8.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육청 306억원(4.0%), 지자체/기타 730억원(3.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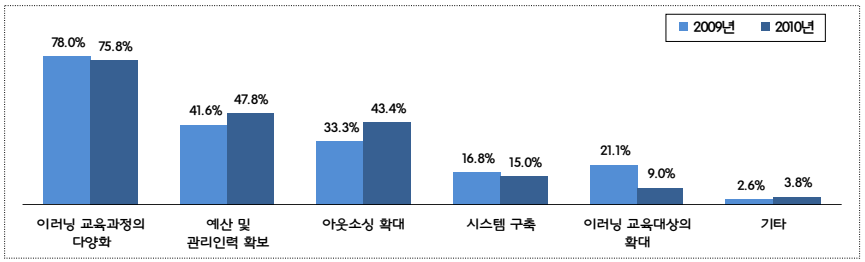
[정부-공공기관의 이러닝 지출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전체	**83,105**	**94,418**	**137,574**	**163,366**	**167,207**	**143,806**	**151,255**	**5.2**
중앙정부기관	21,399	18,059	26,462	38,458	39,009	43,750	47,645	8.9
교육청	21,967	22,699	38,998	44,240	44,602	29,411	30,599	4.0
지자체/기타	39,739	53,660	72,114	80,668	83,598	70,645	73,011	3.3

○ 이러닝 확대 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으로는 '이러닝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75.8%로 가장 많았고, '예산 및 관리인력 확보' 47.8%, '아웃소싱 확대' 43.4%, '시스템 구축' 15.0%, '이러닝 교육대상의 확대' 9.0%의 순

[향후 이러닝 활용확대 요구사항]



< 참고 : 조사개요 >

○ 본 조사는 공급부문(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수요부문(개인, 사업체, 정규교육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구분해 표본을 설계하여 조사
- 공급부문 표본 : 모집단 1,549개사 중 392개
- 수요부문 표본 : 개인 2,102명, 사업체 7,223개, 정규교육기관 700개, 정부 및 공공기관 202개

○ 표본 허용오차
- 공급부문 : ±5억원 (95% 신뢰수준)
- 수요부문 : 개인 ±3%, 사업체 ±5%, 정규교육기관 ±5%, 정부 및 공공기관 5% (95% 신뢰수준)

○ 조사기간 : 2010.9.27 ~ 11.31

○ 조사방식 : 전화, 팩스 및 이메일